

경배와 찬양	임재 / 전능하신 주 / 놀라운 사랑 생명의 주님 / 지극히 높으신 주	다같이
기도		다같이
성경봉독	잠언 말씀	오은비
말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혜의 말씀: 경외, 의뢰, 섬김, 훈계, 화평, 이웃사랑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 새 힘 얻으리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혜의 말씀: 경외, 의뢰, 섬김, 훈계, 화평, 이웃사랑 (잠언)

(경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의뢰/인정)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섬김) 3: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훈계) 3:11 내 아들이 여호와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화평) 3: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웃사랑) 11: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11: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4:21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8: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마지막으로, 잠언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웃사랑의 황금률은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쉬운데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잠 14:31a,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창조물이요, 주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야기) 기독교인의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 먼저요, 수직적 사랑이 그 다음입니다. 그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 십자가를 이루고,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근간이자 이유입니다.

오늘은 잠언 마지막 편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말씀 중,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외경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의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인가요, 두려운 하나님인가요? 내게 밸런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 오늘 나눈 지혜들 중 내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잠언을 3주간 나누면서 느낀 점과 적용하기로 결심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둘째, 범사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작은 것들이 내 영적생활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눅 16:10, 마 6:34) 우리가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고 인정하고 그 분을 신뢰하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인 헌금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 3:9) 잠언 말씀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의 헌금과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 6:21)

파송찬양

민족의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성경적인 헌금은 나의 마음이 담긴 헌금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의 초청이자 calling 입니다.

넷째, ‘징계’를 겸손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잠 3:11) 하나님은 우리보다 굉장히 인내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그 분은 우리에게 많이 인내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잠언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 3:12)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복과 성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잠언은 이웃간에 적용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첫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다는 물을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극단적이면 일단 목소리가 커지고 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평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시다. 저희 입술을 열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제 49권 22호
NOV 14
2021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 첫주 제외)
정기 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 am
토요 무릎 기도회	토 6:30 am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PSAL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광현	antoine7190@gmail.com
간사	이찬재	leechanjae@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탄한인장로교회 청년부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  psalm@akpc.org
-  www.akpc.org
-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재개 안내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장예배와 함께 실시간
ZOOM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진
예약 링크를 통해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기도모임

금요일 저녁 7시에 청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KM-EM 청년 연합 Thanksgiving Banquet

일시/장소 : 11월 21일(주일) 6시, 친교실

세례, 입교 및 성찬

12월 12일 (주일) (세례/입교 신청 : 11/28까지)

세례/입교 교육 : 12월 4일 오후 2~4시 ZOOM으로

세례/입교 문답 : 12월 11일 오후 3시

성찬: 온라인/ 현장 동시에 (청년 예배 -담임목사님께서 집례)

QT 교제11월호 생명의 삶구입 안내

11월호부터는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5월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
다. (현금, 체크, 벤모 모두 가능)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전 등록

대상 : 영주권자, 주재원, 유학생등 한국 국적 소유자

일시/장소 : 11/28(주일) 9:330AM~2:00PM. 교회 로비

준비물 : 여권 또는 여권번호

영사관 직원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2명 모집 (문의 : 이강현 목사)

동시 통역자 모집

장년 주일 예배 설교(1부, 2부) 및 교회 행사시 동시통역을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 예배 위원장 김형진 장로 (hyungjinrim@gmail.com)

토요 무릎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3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팀 모집

1st 피아노1명 (문의 : 김태동 형제, kim_teadong@hotmail.com)

겨자씨 간증 모음

우리 교회 매거진 겨자씨에 담을 청년들의 간증 등을 받고 있습니
다. 문의 : 전해나 자매 (hannah950518@utexas.edu)